

담배 끊은 돈으로 誠金

하와이교포, 서울의 장님아들 기사 읽고 밤일해온 익명의 여성, 50불 본보에기탁

(하와이) 익명을 요구하는 교포 최모여인(28·1624 D-ole St.)이 한국일보 5월15일자 7면에 게재된 「눈먼아들과 눈물의 부검」 기사를 읽고 그 비경의 아비에게 전 해달라고 50달러를 본보 하와이지국에 기탁했다.

1년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민와 누이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밤으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최여인은 「가난 때문에 어린자식을 버려야했던 비경의 아비에게 다소나마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3개월동안 금연구키로 하고 금연으로 절약된 50달러를 기탁했다.

리워드 이민봉사소 문화센터 무료관람

(하와이) 리워드 이민봉사소는 오는 10일(금) 푸리네시언 컬처센터 무료관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와이파후, 킬리니 타운 Aiea, 와이아와지역에 사는 교포들을 위해 버스를 대절하여 파인애플농장, 섀넛비치를 돌아 푸리네시언컬처센터를 관람하는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참가자는 푸리네시언센터의 입장료만은 작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화의 広場』 프로 전개

이민봉사가 협회, 11일부터 4차례 교수·학자·교포들모여 토론도벌어

(하와이) 한국 이민봉사가 협회(회장·이부덕)는 6월 11일부터 8월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대화의 광장」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동행회는 지난달28일 스산나 예술리 커뮤니티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는데 첫 번째 모임은 6월 11일 오후 10시, 2차는 6월 25일 오후 1시, 3차는 7월 23일 오후 9시 갈리히 칠레교회(1888 Owawa St.)에서 각각 열리고, 4차 모임은 8월 15일 오후 1시 McCully-Mellili 주립도서관(2211 S. King St.) 강당에서 연다.

최근 Hawaii Committee For The Humanities로부터 5천 7백달러의 지원금을 배정받은 동행회는 이번 「대화의 광장」에 대한교수와 학자 그리고 이민봉사에 관여하고 있는 봉사기관, 일반 교포들을 초청하여 「다문화사회의식의 한국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우리말 라디오 방송을 들읍시다.
매주 토요일 KTYM 1460 KC
오전 11:30~12:30
저녁 7:00~8:00
한국일보 RADIO KOREA

입장료는 13세 이상 성인인 1달러50센트, 12세 이하의 아동은 50센트이다.
대절버스는 이날 오후 8시 리워드 이민봉사소(94-366 Pupupu St. Waipahu) 앞을 출발하는데 킬리니 타운 지역에서는 교포들을 위해 8시30분 킬리니 타운 소외시설 앞에도 잠깐 머물 예정이다.
☎671-4875 (박영은)

청룡팀 2대 0승 인터내셔널팀에

(하와이) 청룡축구는 지난주 일요일 스포츠 리그전 제 4차전에서 인터내셔널팀을 2:0으로 제압, 4전 3승 1무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청룡은 4개월후에 본국광주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체전에 선수들을 출전시키기로 방침을 세우고 여름 방학과 동시에 매일 카피올라니 운동장에서 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새회장엔 정길봉씨 하와이체육회 정총

(하와이) 하와이 체육회는 지난달28일 호놀룰루 한인 기독교회 강당에서 제 2차 확대 정기총회를 열고 정길봉씨(

하와이대전도센터관장)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임원을 대폭 개설했다.
2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태봉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을 일부 수정한후 회장단 선거에 들어갔는데 5명의 입후보를 추천받아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길봉씨가 25표중 14표를 얻어 회장으로 피선됐다.



▲정길봉회장

새회장단과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정길봉 ▲부회장—홍성규·전영학 ▲사무국장—박필규 ▲이사—황희남·구형희·김승조·최정수·베니신.

불교도모국방문단 대원사 주선으로

(하와이) 하와이 대원사주지(주지·기대원)의 모국성지방문단 일행27명이 지난달 28일 새벽 KAL편으로 귀국했다.

그런데 일행중에는 국악의 인문문화재인 성금연, 지영

하와이 老人會創立

회장엔 최춘식씨·백여회원이 가입 老人會葬·공동묘지조성등 계획

(하와이) 한국노인회회는 7월 1일 오후 2시11시부터 코야나 공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1백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형희씨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총회는 박대희목사의 축도에 이어 경과보고와 회칙공개를 하였으며 최춘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원선거가 있었다.

이어서 한복으로 단정하고 인물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은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회식을 즐기며 노랫가락과 춤으로 미국생활의 외로움을 함께 나눴다.

창립총회(66)은 이날 (1)효부, 효부, 효녀를 매월 선정 시상하며 (2)회원의 사망시 「노인회장」 제도를 적용하며 (3)사회정화를 위해 재혼을 장려하고 (4)한인공동묘지 개발을 추진하는등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노인회의 임의자격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한국노인이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5세이상은 준회원으로 임의가 가능하다.
연락처는 845-4412
노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최춘식 ▲부회장—



창의적이고 소박한 표현

달라스연합교회 사생대회 시상식

(달라스) 달라스 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김택규)가 지난달 15일 파크에서 개최된 제1회 어린이 사생대회의 시상식이 지난27일 오후 11시 동교회의 특별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사생대회에 참가한 31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다수의 교포인 사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했다.
주목한심사위원장은 그림 작품의 구도, 색채법 그리고 충실성등의 심사기준을 경위를 밝히고 「미술 실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대표로서의 자질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출품된 대부분의 그림들이 수준이상이며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어린이 사생대회작품의 최우수상은 테리·송양이

하와이 老人會創立

회장엔 최춘식씨·백여회원이 가입 老人會葬·공동묘지조성등 계획

(하와이) 한국노인회회는 7월 1일 오후 2시11시부터 코야나 공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1백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형희씨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총회는 박대희목사의 축도에 이어 경과보고와 회칙공개를 하였으며 최춘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원선거가 있었다.

창의적이고 소박한 표현

달라스연합교회 사생대회 시상식

(달라스) 달라스 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김택규)가 지난달 15일 파크에서 개최된 제1회 어린이 사생대회의 시상식이 지난27일 오후 11시 동교회의 특별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사생대회에 참가한 31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다수의 교포인 사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했다.
주목한심사위원장은 그림 작품의 구도, 색채법 그리고 충실성등의 심사기준을 경위를 밝히고 「미술 실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대표로서의 자질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출품된 대부분의 그림들이 수준이상이며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어린이 사생대회작품의 최우수상은 테리·송양이

하와이 한국노인회

회장엔 최춘식씨·백여회원이 가입 老人會葬·공동묘지조성등 계획

(하와이) 한국노인회회는 7월 1일 오후 2시11시부터 코야나 공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1백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형희씨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총회는 박대희목사의 축도에 이어 경과보고와 회칙공개를 하였으며 최춘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원선거가 있었다.

창의적이고 소박한 표현

달라스연합교회 사생대회 시상식

(달라스) 달라스 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김택규)가 지난달 15일 파크에서 개최된 제1회 어린이 사생대회의 시상식이 지난27일 오후 11시 동교회의 특별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사생대회에 참가한 31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다수의 교포인 사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했다.
주목한심사위원장은 그림 작품의 구도, 색채법 그리고 충실성등의 심사기준을 경위를 밝히고 「미술 실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대표로서의 자질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출품된 대부분의 그림들이 수준이상이며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어린이 사생대회작품의 최우수상은 테리·송양이

창의적이고 소박한 표현

달라스연합교회 사생대회 시상식

(달라스) 달라스 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김택규)가 지난달 15일 파크에서 개최된 제1회 어린이 사생대회의 시상식이 지난27일 오후 11시 동교회의 특별실에서 거행되었다.

창의적이고 소박한 표현

달라스연합교회 사생대회 시상식

(달라스) 달라스 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김택규)가 지난달 15일 파크에서 개최된 제1회 어린이 사생대회의 시상식이 지난27일 오후 11시 동교회의 특별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사생대회에 참가한 31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다수의 교포인 사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려했다.
주목한심사위원장은 그림 작품의 구도, 색채법 그리고 충실성등의 심사기준을 경위를 밝히고 「미술 실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대표로서의 자질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출품된 대부분의 그림들이 수준이상이며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어린이 사생대회작품의 최우수상은 테리·송양이



장학금모금 사업퍼 휴스턴 한인교회서

(휴스턴) 휴스턴 한인교회의 여전도회(회장·민영진)는 지난달부터 한국농촌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29일 여전도회는 월례회를 열고 장학금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농촌 탁아소에 구호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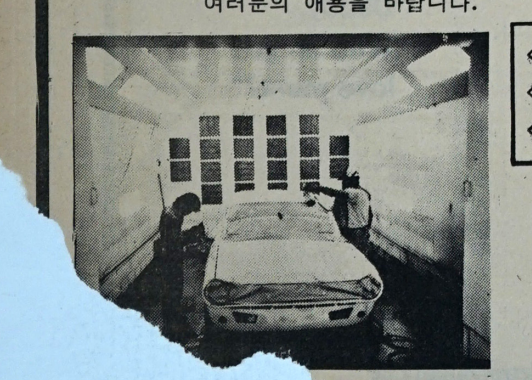
또한 모금방법의 일환으로 오는24일 가정의 밤에 「비밀방문」을 열어 어린이 익명금을 장학금으로 마련하게 계획을 세웠다.
현재 애매중인 비밀방문식편은 3차례다.
이 장학금모금사업은 휴스턴한인교회 여전도회와 자매교회를 통해 추진된다.

휴스턴한인교회 성경반서 수집중
(휴스턴) 휴스턴 한인교회의 요점성경반은 지난15일부터 한국농촌탁아소에 보내어 어린이의류, 책, 장난감등의 물품을 모으고 있다.
수집되어지는 물품은 한국광주지역 미국복음교회 선교부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농촌탁아소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 탁아소는 한국농촌 도서교회시찰장인 존·언더우드목사(한국명·이인호)가 농민기에

* * 하와이 지역 광고 및 구독신청은 955-2292 1649 Kapiolani Bl. Rm.3

S.H. FENDER SHOP

저희 S.H. FENDER SHOP에서는 자동차 페인팅의 완벽을 위해 하와이에서 유일한 특수 건조실을 완공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포 여러분의 애용을 바랍니다.



- ◆차체수리 및 페인팅 <건조실>
- ◆라디에터, 엔진수리
- ◆무료견적, 보험수리, 상담

FENDER SHOP
1111 N. ST. HONOLULU, HI. 96813

대표·이수홍
☎ 542-0770

무교동의 맛!

- 직석 곰창구이 및 생선구이
- 생선초밥, 생선요리
- 각종 스테이크

舞妓 Maiko Restaurant (ILIKAI 호텔내) ☎ 946-5151 한국인 요리사가 직접 서비스

동양 철학원

- 사업 ● 매매 ● 부부 ● 결혼 ● 남녀관계
- 신수 ● 사주 ● 점차 ● 궁합 ● 운명판단
- 직업선택 ● 신병고심 ● 악운제거
- 기타 문의 일체!

1649 KAPIOLANI BLVD. RM. 6. HONOLULU, HAWAII 96814 (이미미식당 2층, 한국여행사 뒷사무실) ☎ 955-6035 (오전 10시~오후 6시)